

축제

The Festival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Festival" (Weird Tales 1925년 1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8553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4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곤」, 「벽 속의 쥐들」 등의 저자.

“악마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인간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만든다.” --락탄티우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동쪽 바다가 내뿜는 기묘한 마력에
사로잡힌 상태였다. 황혼 무렵, 바다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굉음이
들려왔다. 뒤틀린 버드나무들이 맑아지는 하늘과 저녁의 첫 별들을 향
해 몸을 비틀고 있는 저 언덕 너머에 바다가 있음을 직감했다. 조상들
이 나를 그 너머의 오래된 마을로 불렀기에, 나는 얇게 쌓인 첫눈을 헤
치며 길을 재촉했다. 길은 알데바란이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곳을
향해 외롭게 솟아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으나 꿈속에서는 자주
보았던, 그 아주 오래된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유울타이드(Yuletide) 시기였다. 하
지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이 축제가 베들레헴이나 바빌
론보다, 멤피스나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유울
타이드였다. 나는 마침내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고대의 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축제가 금지되었던 태고의 시절, 나의 조상들이 축
제를 치르던 곳이었다. 또한 그들은 태초의 비밀이 잊히지 않도록, 백
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축제를 열라고 후손들에게 명했던 곳이기도 했
다. 나의 조상들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들이었다. 이 땅에 정착이 시
작되기 삼백 년 전부터 이미 오래된 혈통이었다. 그들은 기이한 이들이
었다. 아편 향기가 감도는 남쪽의 난초 정원에서 어둡고 은밀하게 흘러
들어온 이들이었으며, 푸른 눈의 어부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의식만을 공유하고 있었다. 전설이 명한 대로, 그날 밤 이 오래된 어촌 마을로 돌아온 이는 나 뿐이었다. 오직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만이 기억을 간직하는 법이니까.

언덕 너머로 황혼에 잠긴 킹스포트의 서늘한 전경이 펼쳐졌다. 눈 덮인 킹스포트에는 오래된 풍향계와 첩탑, 지붕 마루와 굴뚝, 부두와 작은 다리, 버드나무와 묘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파르고 좁으며 구불구불한 거리들은 끝없는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마을 중심의 언덕 위에는 시간이 감히 건드리지 못한 듯한 교회가 위태롭게 솟아 있었다. 식민지 시대의 가옥들은 마치 아이가 어지럽게 쌓아 놓은 블록처럼 온갖 각도와 높낮이로 겹겹이 쌓이거나 흩어져 끝없는 미로를 이루었다. 겨울의 흰 눈이 내려앉은 박공지붕과 경사지붕 위로는 고대의 기운이 회색 날개를 펴고 맴돌았다. 그리고 썩어가는 부두를 향해 바다가 몰아치고 있었다. 태고의 시절부터 사람들이 건너온, 비밀을 간직한 저 아득한 바다가 끊임없이 파도를 내리치고 있었다.

길의 꼭대기 옆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었다. 황량한 그곳은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공동묘지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눈 사이로 삐죽삐죽 솟아오른 검은 비석들은 마치 거대한 시체의 썩어 문드러진 손톱처럼 기괴한 모습이었다. 발자국 하나 없는 길은 지독히도 쓸쓸했다. 가끔은 바람에 흔들리는 교수대에서 나는 듯한, 멀리서 들려오는 끔찍한 삐걱거림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1692년, 사람들은 마녀술을 부렸다는 이유로 내 친척 네 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지 못했다.

길이 바다 쪽 경사면을 따라 굽이져 내려갈 때, 나는 저녁 무렵 마을에서 들려올 법한 즐거운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득 지금이 연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이 오래된 청교도 마을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고요한 벽난로가에서 기도를 올리는 그들만의 기이한 크리스마스 풍습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더 이상 즐거운 소리를 찾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살피지 않았다. 그저 불빛이 새어 나오는 고요한 농가와 그림자 진 돌담들을 지나 계속 내려갔다.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에 낡은 상점과 바닷가 주점의 간판들이 빼적거리는 곳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창문들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따라, 인적 끊긴 비포장도로를 따라 기괴한 모양의 문고리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마을 지도를 보아두었기에 내 일족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마을의 전설은 오래도록 살아남는 법이라, 내가 가면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환영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백 스트리트를 지나 서클 코트로 서둘러 향했다. 마을에 유일하게 깔린 평평한 판석 보도 위로 갓 내려앉은 눈을 밟으며, 마켓 하우스 뒤편으로 이어지는 그린 레인까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걸어오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하얀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일족의 집 문을 두드리고 싶어 건달 수 없었다. 1650년 이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박공지붕과 푹 튀어나온 2층 구조를 가진 그 집은 그린 레인 왼쪽에서 일곱 번째에 위치해 있었다.

집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집의 모습은 아주 오래된 상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2층 부분은 풀이 무성한 좁은 거리 위로 돌출되어 있었는데, 맞은편 집의 돌출된 부분과 거의 맞닿을 정도였다. 덕분에 나는 마치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낮게 깔린 돌 문턱에는 눈이 전혀 쌓여 있지 않았다. 보도는 따로 없었지만, 많은 집이 철제 난간이 달린 이중 계단을 통해 높은 문으로 이어져 있었다. 참으로 기묘한 풍경이었다. 뉴잉글랜드 땅이 낯설었던 내게는 이런 광경이 처음이었다. 풍경이 마음에 들긴 했으나,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커튼을 치지 않은 창문이 몇 개쯤 더 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 * * * *

고풍스러운 철제 문고리를 두드릴 때, 나는 내심 두려웠다. 내 혈통의 기묘함 때문인지, 혹은 황량한 저녁 공기나 기이한 관습이 지배하는 이 오래된 마을의 기묘한 정적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내 안에는 이미 어떤 공포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린 뒤 응답이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겁에 질리고 말았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 전까지, 그 어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가에 나타난, 가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노인의 온화한 얼굴이 나를 안심시켰다. 노인은 자신이 말을 할 수 없다는 몸짓을 보였으나, 들고 있던 스타일러스와 밀랍 판을 이용해 기묘하고도 고풍스러운 환영의 인사를 적어 보였다.

그는 나를 촛불이 일렁이는 낮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거대한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17세기의 양식을 간직한 어둡고 딱딱하며 들성들성 놓인 가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의 모습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살아 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생생했다. 방 한편에는 동굴처럼 커다란 벽난로가 있었고, 물레 앞에는 헐렁한 겹옷을 입고 깊은 보닛을 눌러쓴 허리가 굽은 노파가 앉아 있었다. 축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를 등진 채 아무 말 없이 물레질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공간 전체에 끝을 알 수 없는 습기가 감돌았기에, 나는 왜 불을 지피지 않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왼쪽에는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는 등받이가 높은 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 중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전에 느꼈던 공포가 다시금 밀려왔다. 오히려 공포를 덜어주었던 요소들이 이제는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었다. 노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지나친 무덤덤함이 나를 전율케 했다. 눈동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피부는 마치 밀랍처럼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결국 나는 확신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악마처럼 교활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기묘하게 장갑을 낀 듯한 그 흐물흐물한 손은 테이블 위에 다정하게 글을 적어 내려갔다.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안내받기 전까지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인은 의자와 탁자, 그리고 쌓여 있는 책더미를 가리킨 뒤 방을 나갔다. 내가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책들은 하나같이 오래되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중에는 옛 모리스터가 쓴 기괴한 『과학의

경이(Marvels of Science)』도 있었고, 1681년에 출간된 조셉 글랜빌의 끔찍한 저서 『사두세이즘의 승리(Saducismus Triumphatus)』도 있었다. 또한 1595년 리옹에서 인쇄된 레미기우스의 충격적인 『마귀 숭배(Daemonolatreia)』도 보였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광인 아랍인 압둘 알하자드(Abdul Alhazred)가 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네크로노미콘(Necronomicon)』이었다. 올라우스 위미우스의 금지된 라틴어 번역본이었다. 나는 그 책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괴이한 이야기들이 속삭여지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만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보닛을 쓴 노파가 말없이 실을 뽑는 물레의 회전음만이 계속해서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 안의 풍경과 책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음산하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기이한 축제에 참석해야 했기에, 나는 별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책을 읽으려 애썼다. 그러다 곧 그 저주받은 『네크로노미콘』에서 발견한 어떤 내용에 온몸을 떨며 빠져들고 말았다. 그것은 이성이나 의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생각과 전설이었다.

하지만 긴 의자가 마주 보고 있는 창문 중 하나가 닫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다. 마치 누군가 살금살금

그 창문을 열었던 것만 같았다. 그 소리는 노파의 물레 돌아가는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뒤따르고 있었다. 물론 노파가 물레를 아주 세게 돌리고 있었고 낡은 시계가 종을 울리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긴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느낌조차 사라진 채, 몸을 떨며 책 읽기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노인이 돌아왔다. 그는 장화를 신고 험령한 고전풍 의상을 입은 채, 바로 그 긴 의자에 앉았다. 그 바람에 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 괴로웠고, 손에 든 불경한 책은 그 불안감을 두 배로 키웠다.

11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구석에 있는 거대한 조각 상자 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후드가 달린 망토 두 벌을 가져왔다. 노인은 그중 하나를 직접 입고, 나머지 하나는 단조로운 물레질을 멈추고 있던 노파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러고는 두 사람 모두 바깥문으로 향했다. 노파는 절뚝거리며 느릿느릿 움직였고, 노인은 내가 읽고 있던 바로 그 책을 집어 들었다. 그러고는 움직임을 멈춘 얼굴 혹은 가면 위로 후드를 뒤집어쓴 채, 나를 향해 손짓하며 불렀다.

우리는 달빛조차 들지 않는, 그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래된 마을의 구불구불한 미로 속으로 나아갔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시리우스 별은 모든 문틈에서 소리 없이 쏟아져 나와 이 거리 저 거리로 괴물 같은 행렬을 이루는, 망토를 두르고 머리덮개를 쓴 형체들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행렬

은 빼격거리는 간판과 태고의 흔적이 남은 박공벽, 초가 지붕과 다이아몬드 격자창을 지나 흘러갔다. 우리는 낡은 집들이 서로 겹쳐진 채 무너져 내리는 가파른 골목을 헤집고, 탁 트인 안뜰과 교회 묘지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곳에서 흔들리는 등불들은 마치 기괴하게 취한 별자리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침묵에 잠긴 군중 사이에서 나는 말 없는 인도자들을 따라갔다. 내 몸은 기이할 정도로 부드러운 팔꿈치들에 치였고, 비정상적으로 물렁물렁한 가슴과 배에 밀려 나아갔다. 하지만 그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단 한 마디의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기괴한 인파의 기둥은 위로, 위로, 계속해서 꿈틀대며 올라갔다. 마을 중심부의 높은 언덕 꼭대기, 거대한 흰색 교회가 자리 잡은 미로 같은 골목들이 모여드는 곳을 향해 모든 행인이 흘러들고 있었다. 킹스포트에 어스름이 내릴 무렵, 길 언덕 위에서 그 교회를 보았을 때 나는 몸서리쳤던 기억이 난다. 당시 알데바란 별이 그 유령 같은 침탑 끝에 잠시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교회 주변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었다. 한쪽은 유령 같은 비석들이 늘어선 교회 묘지였고, 다른 한쪽은 바람에 눈이 거의 다 쓸려 내려가 반쯤 포장된 광장이었다. 광장 주변으로는 뾰족한 지붕과 돌출된 박공이 달린, 불길할 정도로 고풍스러운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무덤 위로는 죽음의 불꽃이 넘실거리며 소름 끼치는 풍경을 비추었으나, 기이하게도 그 불꽃은 아무런 그림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집들이 없는 교회 묘지 너머로는 언덕 꼭대기 너머까지 시야가 트여 있었다. 어둠에 잠긴 마을 자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항구 위로 반짝이는 별빛만은 볼 수 있

었다. 가끔씩 등불 하나가 구불구불한 골목 사이를 기분 나쁘게 흔들며 지나갔다. 그 등불은 이제 아무 말 없이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인파를 뒤쫓고 있었다.

군중이 검은 입구 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고, 뒤쳐진 이들까지 모두 따라 들어갈 때까지 나는 기다렸다. 노인이 내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나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침내 불길한 인상과 늙은 실자는 여인의 뒤를 따라 나도 발을 뗐다. 정체를 모를 어둠이 꿈틀대는 사원으로 들어서며 문턱을 넘던 찰나, 나는 바깥세상을 보려 고개를 돌렸다. 묘지의 인광이 언덕 위 보도에 병적인 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서리를 쳤다. 바람이 눈을 많이 쓸어가긴 했으나, 문 근처 길목에는 여전히 눈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그런데 찰나의 뒤돌아봄 속에서, 불안에 휩싸인 내 눈에는 그 눈 위에 지나간 발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 발자국조차 말이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등불들이 있었으나, 이미 군중 대부분이 사라진 뒤라 빛은 거의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흰색 예배석 사이의 통로를 따라 설교단 바로 앞에 혐오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지하 묘지 함정문으로 흘러 들어갔고, 이제는 소리 없이 꿈틀거리며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닳아버린 계단을 따라 멍하니 내려가 눅눅하고 숨 막히는 지하 묘실로 들어섰다. 밤의 행진단이 이루는 그 구불구불한 줄의 끝자락은 무척이나 소름 끼쳤으며, 그들이 오래된 무덤 속으로 몸을 비틀며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그때 무덤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우리 모두는 거칠게 깎아 만든 돌로 된 불길한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좁고 나선형인 그 계단은 축축하고 기묘한 악취를 풍기며, 물방울이 떨어지는 단조로운 돌벽과 부서져 내리는 모르타르를 지나 언덕의 심장부를 향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진행되는 충격적인 하강이었다. 한참의 끔찍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벽과 계단의 성질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치 단단한 암석을 직접 깎아 만든 것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수많은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어떤 메아리조차 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영겁 같은 하강이 계속되자, 알 수 없는 어둠의 구석진 곳에서 이 신비로운 밤의 통로로 이어지는 측면 통로나 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곧 그 통로들은 이름 모를 위협이 도사리는 불경한 지하 묘지처럼 무수히 늘어났고, 그곳에서 풍겨 나오는 톱 쏘는 부패취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우리는 분명 산을 뚫고 내려와 킹스포트 마을의 땅 밑까지 도달했을 것이다. 지하에 도사린 악의로 인해 마을이 이토록 오래되고 구더기가 들끓는 듯한 상태라는 사실에 나는 몸서리쳤다.

그때 창백한 빛이 기괴하게 일렁이는 것이 보였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물결이 교활하게 찰랑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시금 몸을 떨었다. 밤이 불러들인 이 기괴한 존재들이 두려웠고, 조상 중 누군가가 나를 이 원시적인 의식에 불러내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계단과 통

로가 점점 넓어지더니, 가냘픈 플루트가 비웃듯 가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내 눈앞으로 내면 세계의 끝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병적인 초록빛 불꽃을 토해내는 기둥이 비추고, 기름진 넓은 강물이 씻어 내리는 거대한 버섯 군락의 해안이었다. 그 강물은 공포스럽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흘러나와,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해 온 가장 검은 해구로 흘러들고 있었다.

* * * * *

나는 정신을 잃을 듯 숨을 몰아쉬며, 거대한 버섯과 나병에 걸린 듯한 불꽃, 그리고 끈적이는 물이 뒤섞인 그 불경한 에레보스의 심연을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기둥 주위로 망토를 두른 무리가 반원을 그리며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인류보다 오래되었으며, 인류가 멸망한 뒤에도 살아남을 유월(Yule)의 의식이었다. 동지의 원초적 의례이자, 눈 덮인 대지 너머 봄의 약속을 기리는 의식이었으며, 불과 상륙수, 빛과 음악을 위한 의식이었다.

나는 그 스티기아의 동굴 속에서 그들이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병든 불꽃 기둥을 숭배하며, 창백한 빛 속에서 초록색으로 번뜩이는 끈적한 식물들을 한 움큼씩 뜯어내 물속으로 던져 넣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았고, 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체 없이 웅크린 채 불쾌한 피리 소리를 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 존재가 피리를 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악취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결하고 둔탁하게 퍼덕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저 타오르는 기둥이었다. 기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부터 화산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건강한 불꽃이라면 당연히 만들어내야 할 그림자를 전혀 드리우지 않았고, 그 위의 질소 가득한 바위 위에는 불쾌하고 독성이 강한 청록색 녹을 입히고 있었다. 그 들끓는 연소의 불길 속에는 온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오직 죽음과 부패의 끈적거림만이 감돌 뿐이었다.

나를 데려온 남자는 이제 끔찍한 불꽃 바로 옆까지 몸을 비틀며 다가갔다. 그러고는 눈앞에 늘어선 반원형의 무리를 향해 딱딱하고 의례적인 동작을 취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특정 단계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특히 그가 가져온 혐오스러운 『네크로노미콘』을 머리 위로 치켜들 때면 더욱 그러했다. 나 역시 조상들의 기록을 통해 이 축제에 소환된 몸이었기에, 그들과 함께 엎드려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노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피리 연주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연주자는 가냘프게 울리던 음을 다른 조의, 조금 더 큰 소리로 바꾸어 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예상치 못한 공포가 몰려왔다. 나는 그 공포 앞에서 이 세상의 것도, 그 어떤 세계의 것도 아닌, 오직 별들 사이의 미친 공간에서 비롯된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끼 낀 땅 위로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그 차가운 불꽃이 내뿜는 괴사한 듯한 섬광 너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기괴하고 소리도 없이, 누구도 짐작조차 못 한 채 흘러

가는 그 기름진 강줄기의 지옥 같은 거리 너머에서, 날개 달린 혼종 생물 무리가 리듬을 타며 퍼덕이며 나타났다. 그것들은 길들여지고 훈련된 무리였으나, 온전한 눈으로는 결코 형체를 다 파악할 수 없었고, 온전한 정신으로는 결코 온전히 기억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것들은 까마귀도, 두더지도, 독수리도, 개미도, 흡혈박쥐도, 혹은 부패한 인간의 형상도 아니었다. 차마 떠올릴 수도 없고, 떠올려서도 안 되는 무언가였다. 생물들은 물갈퀴 달린 발과 막질의 날개를 번갈아 휘저으며 힘없이 퍼덕이며 나아갔다. 축제를 즐기는 무리에 다다르자, 두건을 쓴 형체들이 그 생물들을 붙잡아 올라탔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빛한 점 없는 강줄기를 따라 멀어져 갔다. 독을 품은 샘물이 무시무시하고도 알 수 없는 폭포를 이루어 쏟아지는, 공포의 구덩이와 동굴 속으로.

물레를 돌리던 노파는 인파를 따라 떠나갔고, 노인은 홀로 남았다. 다른 이들처럼 짐승을 잡아 타고 가자며 손짓했지만,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을 때, 형체 없는 피리 연주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다만 짐승 두 마리만이 인내심 있게 곁을 지키며 서 있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자, 노인은 필기구와 판을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 고대 유적에서 '율(Yule)' 숭배를 창시한 내 조상들의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적었다. 또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운명 지어졌으며, 가장 은밀한 신비의 의식이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은 매우 고풍스러운 필체로 이 글을 써 내려갔다. 내가 여전히 망설이자, 그는 자신이 말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혈령한 옷자락 속에서 인장 반지와 회중시계를 꺼냈다. 두 물건에는 모두 내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차라리 끔찍한 증거였다. 오래된 기록을 통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회중시계는 1698년, 나의 6대조 할아버지와 함께 매장된 물건이었다.

그때 노인이 후드를 뒤로 젖히며 자신의 얼굴에 서린 가족의 흔적을 가리켰다. 하지만 나는 그저 몸서리를 칠 뿐이었다. 그 얼굴이 그저 악마가 빚어낸 밀랍 가면일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꿈틀거리는 괴물들은 이제 지의류를 불안하게 굶어대고 있었고, 노인 역시 그만큼이나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괴물 중 하나가 뒤뚱거리며 옆으로 비켜나려 하자, 노인은 그것을 막으려 급히 몸을 돌렸다.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노인의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할 밀랍 가면이 툭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악몽 같은 괴물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내려왔던 돌계단으로 도망칠 길이 막혀버렸다. 나는 그대로 기름진 지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 강물은 어딘가 바다 동굴로 이어지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미쳐버리기 전에, 이 역겨운 구렁텅이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시체 군단이 나를 덮치기 전에, 나는 대지의 내면에 도사린 공포가 뿜어내는 그 부패한 즙액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새벽녘 킹스포트 항구에서 몸이 반쯤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다고. 사고가 나를 구하기 위해 떠내려 보낸 나무 판자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날 밤, 언덕길에서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오렌지 포인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다.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토대로 추론한 결과라고 그들은 덧 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커다란 창밖으로 보이는 지붕의 바다는 오직 다섯 채 중 한 채 정도만이 고풍스러운 모습이었고, 거리 아래에서는 전차와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다. 모든 것이 생경하고 틀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곳이 분명 킹스포트라고 주장했고,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병원이 센트럴 힐의 오래된 교회 묘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지자, 사람들은 나를 아컴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이라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의사들은 사고가 유연했고, 미스카토닉 대학교 도서관에서 알하자드의 불온한 저서인 『네크로노미콘』의 엄격히 관리되는 사본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내 상태를 두고 '정신병' 어찌고 하며, 나를 괴롭히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끔찍한 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두 배로 몸서리쳤다. 그 내용이 내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발자국이 무엇을 말해주는 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보

있는지는 차라리 잊어버리는 편이 나았다. 깨어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상기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꿈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감히 인용조차 할 수 없는 문구들 때문이다. 나는 오직 한 단락만을 인용하고자 한다. 서투른 저급 라틴어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영어로 옮겨 적은 문장이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동굴들은,” 미친 아랍인이 기록했다.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의 경이로움은 기이하고도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죽은 사념들이 새로운 형상을 입고 기묘하게 살아 움직이는 땅에는 저주가 내릴 것이며, 어떤 머리에도 담기지 않은 정신은 사악하다. 이븐 샤카바크가 남긴 말은 지혜롭다. 마법사가 놓지 않은 무덤은 행복하며, 마법사들이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진 밤의 마을 또한 행복하다고 말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의 혼은 육신의 유해를 서둘러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벌레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가르침을 준다는 오래된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 벌레는 부패 속에서 끔찍한 생명을 길러내고, 땅 위의 둔한 청소부들은 그 생명을 괴롭히기 위해 교활해지며,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 나간다. 대지의 구멍만으로도 충분해야 할 곳에 거대한 구멍들이 은밀히 파헤쳐지고, 기어 다녀야 마땅할 것들이 걷는 법을 익히게 된다.”